

ELECTRO '85의 新製品 動向

— 美國의 電子部品 · 관련 機器展 —

1. 半導體

美國 東海岸 지역의 최대 電子部品 關聯機器展인 Electro 및 Mini/Micro Northeast가 지난 4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 뉴욕의 콜로시엄과 웨라톤센터에서 열렸다. 電子製品, 同製造裝置, 計測器 分野의 메이커 등 600여개사에서 出品에 참가하여 會期 중 5만 8,149명의 觀覽자들이 모여 들었다.

電子部品 분야에서는 ATT (美國電話電信公社)가 드디어 外販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데대하여 화제가 되었다.

ATT는 작년초부터 35K비트 DRAM, Optical Data Link라는 주요 部品の 外販을 시작한 바 있으며ELECTRO'85를 계기로 32비트 MPU의 外販을 개시하므로써 더욱 外販市場에 있어서의 활동을 강화했다.

ATT는 1M비트 DRAM에 있어서도 올해 후반부터 出荷할 계획으로 더욱 外販에 主力하고 있다. 이들 Device의 日本에 있어서의 出荷時期에 있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日本의 大메

이커들과 交渉중에 있으므로 올해 후반에는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32비트 MPU에서 앞서 가고 있는 National Semiconductor (NS), Motorola의 兩社는 32비트 MPU를 搭載한 시스템이나 Board를 展示, 이미 實用化 단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작년 가을의 WESCON에서 32비트 MPU 「iAPX 386」을 올해 안에 出荷할 것을 밝힌 바 있는 Intel社에서도 재차 이를 確認, 올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드디어 Intel 製 32비트 MPU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비트 MPU市場을 지배하고 있는 Intel社는 32비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해 왔으나 競争 各社의 商業化에 이어 特別注文의 필요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32비트에 대해서도 주력하게 되었다.

32비트 MPU는 아직 첫 출발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10억弗 규모의 市場으로 急成長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메모리에 있어서는 大容量 ROM의 동향이 두드러진다. NCR社가 Access時間 150nano秒의 新型 256비트 CMOS ROM(32K Word×8 bit 構成)을 1만개 契約時 単価 6,50弗에 售出한데 대해 모스텍社에서는 1.5미크론線에 바탕을 둔 1M비트 CMOS ROM(128K워드×16비트構成)을 1천개 契約時 単価 55弗로 발표하고 있다. 모스텍社의 1M비트 CMOS ROM의 Access 時間은 120nano秒/150nano秒로 同等 機種에서는 最高速을 나타내고 있다.

NS社는 Access 時間이 불과 15nano秒의 新型 256비트(32Word×8 bit 構成)PROM을 100개 이상 契約時 単価 2.8弗(플라스틱 DIP)과 3.10弗(세라믹 DIP)로 발표하고 있다.

2. 計測機器

計測器分野에서는 텍트로닉스, 휴레드 패카드社의 2대메이커에서 출품하지 않았으나 Gould, 존 폴크, 니콜, 필립스 등 中堅 메이커들의 등장이 활발해지고 있어 美國의 計測器業界의 底力을 확인할 수 있었다.

計測器 분야에서는 小型化와 시스템化가 차실히 進전되고 있다. Panasonic (日本松下電氣)

는 重量이 불과 5kg으로 폭 193×높이 102×폭 362mm의 100MHz 포터블 오실로스코프를 展示하여 주목을 끌었다. 7월부터 3천弗 전후로 発売하여 初年度에는 적어도 1천대의 出荷를 예상하고 있다.

Gould社에서도 역시 포터블 오실로스코프를 出品하였으나 여기서는 20MHz, 무게 7.5kg, 外形규격 140×305×460mm로 標準價格은 2,950弗이다.

하니웰社에서는 同社로서는 처음으로 綜合計測시스템인 「Test Management System」을 발표했다. 測定, 分析, Report, 通信 등 諸機能을 統合한 것으로 최초의 테스트 設計에서부터 최종적인 Report에 이르기까지 모든 局面에 대한 效率를 上昇시킨다고 한다. 基本시스템 價格은 2만弗이다.

마이콤 開發支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Logic, Analyzer, Emulator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도 의욕적으로 출품되었다.

日本 메이커로는 리더電子, 菊水電子, 日立電子, Panasonic, 岩崎通信機 등이 오실로스코프를 중심으로 출품했다. 리더電子는 同社의 100MHz 오실로스코프에 대해 1,400弗을 밀도는 가격으로 발표하므로써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리더 인스트루먼트社측은 100MHz 오실로스코프는 同社의 特売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同製品의 購入을 계기로 하여 다른 關聯製品도 연관시켜 販賣한다는 戰略에 있다. 리더電子는 35MHz, 2채널의 製品으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市場에 진출한 외에도 各種 Signal Generator도 浮刻시키고 있다.

파나소닉社에서는 포터블 오실로스코프 외에 Multi Channel TV Sound(MTS) Modulator, AM Stereo Signal Generator 등으로 앞으로 需要가 기대될 수 있는 新分野를 겨냥하고 있다. AM Stereo Signal Generator는 GM, Ford, 크라이슬러 등 自動車 大메이커를 중심으로 이미 250대 이상의 出荷実績을 쌓고 있다.

岩崎通信機는 200MHz 오실로스코프를 3천弗을 밀도는 가격으로 発売했다. 日立電子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好調를 이루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터로 菊水電子는 오실로스코프, 시그널 제네레이터를 각각 출품했다.

3. Display, 其他

디스플레이에서는 앞으로 급속적인 신장이 기대되는 포터블 컴퓨터 需要를 겨냥한 製品들이 두드러진다. Panasonic은 400×640 Pick Cell의 DC Plasma Display, NEC도 같은 규격의 제품, Sharp는 EL 및 液晶 Touch Panel을 출품하여 각각 이미 美国 메이커의 포터블 컴퓨터로 실용화되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이들 新형 디스플레이 가운데서 어떤 모델이 主流를 이룰 것인가는 IBM社의 향방에 달려 있으며 올해 후반부터 내년에 걸쳐 윤곽이 들어날 것이다.

Panasonic社의 DC Plasma Display는 100×300×20mm로 작년 가을부터 販賣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격은 1,000弗로 이미 몇개社에서 샘플을 出荷하고 있어 얼마 전 에릭슨社가 발표한 포터블컴퓨터(무게 15파운드, 가격 3,000弗)에도 채용되고 있다. 에릭슨社에서는 이것을 올해 가을부터 発売할 것이라 한다.

NEC의 A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同社의 總販을 맡고 있는 World Products社에서 출품한 것으로 188×289×35mm로 작년 9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이미 IBM社를 포함한 大메이커에 샘플 出荷를 끝내고 있다.

현재 포터블 컴퓨터市場은 배터리 驅動의 液晶포터블과 外部電源에 의한 트랜스 포터블로 나뉘어지고 있으나 消費電力이 큰 플라즈마가 사용되는 것은 트랜스 포터블이다. 파나소닉, NEC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최대 消費電力은 각각 27W, 28W이다. 플라즈마를 배터리驅動의 포터블에 사용한다는 것은 消費電力 측면에서 볼 때 無理라고 파나소닉社측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트랜스 포터블이라 하더라도 무게가 15파운드로 小型 輕量이라는 측면에서는 液晶과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一貫하여 CMOS, 低電力消費의 液晶技術을 추구하는 Epson社는 종래의 1.9인치 컬러液晶에 이어 1.27인치, 4.25인치의 디스플레이도 출품했다. 올 여름에는 1.9인치 液晶 컬러 TV도 등장할 것이라 한다. 또한 航空機 등의 Navigation을 대상으로 5.13인치 液晶도 개발중에 있어 근간 발표될 것이라 한다.